

200-4-059. 조선공산당 재조직 계획 검거의 건

■ 1930년 5월 22일 경기도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고한 조선공산당 조직 계획 검거 사건 수록

- 1925년 4월 화요회를 중심으로 조직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는 같은 해 말 또는 1926년 6월 2차에 걸친 검거에 의해 한때 전멸된 듯 하였다. 同派의 殘黨 서울 ML 각 파는 潛行的 組織을 反覆하였으나 內紅으로 검거의 단서를 제공하였고, 1928년 7월 모스크바의 제6차 국제공산당대회에서도 이 결점을 지적,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하고 派爭을 청산하지 않는 한 승인 않기로 하였다.
- 1928년 12월 동당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은 조선공산당 재조직에 관한 지령을 채택, 각 파는 경쟁적으로 自派를 중심으로 조직하려고 밀사를 파견하고 조직을 준비하였다. 1929년 7월 국제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잠입한 공산대학 출신 趙斗元(26세)을 1930년 1월 29일 경성에서 체포하였으나, 모든 연락망은 절대 부인하였다.
- 1929년 7월부터 10월까지 잠입한 화요계에 속하는 공산대학생 수 명은, 金丹治를 중심으로 국제공산당으로부터 당 재조직 지도를 위해 파견되어 미국인 스미스의 지도를 받아 공산당 조직에 착수하였다. 權五稷 등의 불온문서사건과 관련 4월 19일 74명을 검거 송치하였다. 그러나 사상운동은 도시로부터 농촌으로, 지식계급으로부터 노동자·농민으로 이동되고 있다.
- 1930년 7월 25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경시총감을 비롯하여 각 법원검사장, 조선헌병대 사령관, 조선군 사령관에 게 보고한 화요파 조선공산당 재조직 사건 검거에 관한 건의 검거 人員은 106명이다. 관련자의 본적, 주소, 직업, 성명, 연령은 0169~0201쪽을 참조
- 暗號譯文 別紙 1호 0283~0286쪽, '3.1 운동 11주를 기하여 전조선 노력대중에 대한 격문: 만국 무산자와 세계 피압박 민족은 단결하라' 別紙 2호 0287~0292쪽, '전조선 피압박 피착취계급에 대한 격문' 別紙 3호 0293~0300쪽 참조